

월간양계 창간 38주년에 즈음하여



최준구 본회 회장

양계인을 위한 동반자이자 대변자인 월간양계가 이번호로 38돌을 맞이하였습니다. 월간양계는 그동안 양계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농가들에게 제공하면서 양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그동안 수 많은 글들을 기고해주신 집필자는 물론 월간양계가 38년동안 결간없이 발간되도록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신 광고 협찬인 및 관련업체들에게 지면을 통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지난 19-20일 양일간에 걸쳐 충북 괴산소재 화양계곡에서 제 14회 전국양계인대회가 성황리에 끝날 수 있도록 자리에 참석해 주신 양계인 및 관련인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대회는 지난 2000년 경남 김해에서 개최된 이후 7년만에 준비한 대회기 때문에 의미가 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월간양계도 시간의 흐름속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창간 당시에는 사양관리 등 농장에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주력하였으나 최근에는 안전한 양계산물 생산이나 국제정세와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월간양계는 이처럼 변화무쌍하게 전개되는 여건 속에서 새로운 정보를 양계인들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국·내외 수많은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양계산업을 지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 왔으며, 이를 기반으로 우리 양계산업은 한국축산의 한 분야를 담당하며 국민들에게 최고의 건강식품을 공급하면서 성장을 거듭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리 양계산업은 과잉 생산과 소비부진으로 최악의 불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더욱

이 국회 비준을 앞두고 있는 한·미 FTA와 현재 진행중에 있는 한·EU FTA 등 국내 양계산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자유무역협정이 우리의 입지를 좁혀가고 있으며, 겨울철이 다가오면서 언제 다시 재발할지도 모르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때문에 걱정이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03년 발생되었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이후 장기간 이어진 호황으로 인해 생산량이 큰 폭 증가하여 불황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어 걱정입니다.

양계인대회에 모였던 모든 양계인들은 대회장에서 한마음이 되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 재발방지, FTA 적극 대처, 양계자조금 정착, 적정사육수수 유지 등을 결의한 바 있습니다. 이날 결집했던 힘을 바탕으로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새로운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방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하지만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양계산물 생산과 소비자에 발맞춘 새로운 제품 개발 등을 통해 양계산업을 이끌어 간다면 국제 개방화 속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회에서 정부와 연계하여 국내 양계산업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FTA 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제는 생산만 하면 소비가 되는 시대는 이미 지났습니다. 앞으로는 소비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환경을 생각하는 축산을 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언론지상에 자주 등장하는 항생제 문제도 휴약기간을 엄수하고 소비자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양계산물을 생산한다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본회는 2003년부터 두차례에 걸쳐 양계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왔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의 재발을 막기 위해 농가 차단방역에 중점을 두고 '발판 소독조 설치 및 장화갈아 신기'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감염원으로 추정되는 철새에 의해 시바이러스가 국내에 유입되더라도 농장내 기본적인 차단방역만 지켜준다면 시 청정국을 영원히 유지시켜 나갈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 양계산업은 물론 개인 농장을 지키는 의미에서 이 운동에 농가들의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본회는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등 방역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체제를 유지하고, 정부와도 제도적인 뒷받침을 통해 시유입을 막는데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본회에서는 불황을 미연에 방지하고 수급조절 차원에서 정부와 연계하여 종계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지난 2005년부터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장들의 협조하에 많은 자료들이 축적되고 있으며, 앞으로 이를 통해 수급조절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생산조절도 물론 중요하지만 양계산물 소비홍보를 통한 자조금 사업 활성화에도 관심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타 축종에 비해 의무자조금 사업 진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산업의 특성상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그 고리의 매듭을 풀지 못하는데 있다고 봅니다. 양계산업 발전을 위한 거시적인 안목으로 자조금 사업 정착과 활성화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월간양계가 더욱 정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월간양계를 통해 유익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양계**